**제사장 그리스도**

웨슬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가 기독교와 모든 이교를 구분 짓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라고 가르쳤다.[[1]](#footnote-1)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이 필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2]](#footnote-2) 1756년에 쓴 편지에서 윌리엄 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한 것에 대해 웨슬리는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를 함께” 가지신 분이시라고 반박했다.[[3]](#footnote-3) 하나님의 진노란 그의 의로우심이 죄에 대해 표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 역시 부인하는 것이다.”[[4]](#footnote-4) 개신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란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이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죄인의 영혼에 적용한 결과”다.[[5]](#footnote-5)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할 때도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행하신 율법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된다는 루터와 칼빈식 전가 교리에 대한 수정으로 나타났다. 웨슬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주”(1765)라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된다는 교리의 바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용납되는 것은, 현재 그들 속에 있는 무엇이나 과거에 그들 속에 있었던 무엇, 또는 그들이 미래에 할 수 있을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고난 받으신 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일 뿐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만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언제나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 우리는 이 유일하고 동일한 방법으로만 새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6]](#footnote-6)

웨슬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진리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자, 기독교의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토대이며 … 루터가 선포한 대로 ‘기독교 교회의 흥망이 달린 진리’이자 … 구원 얻는 신앙의 기둥과 초석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서 발견되는 정통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이기에, 이 믿음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멸망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7]](#footnote-7) 웨슬리 자신이 “지난 28년 동안 초지일관 믿고 가르쳐왔고 … 1738년에 영국 국교회 표준설교집에서 발췌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해 12쇄를 거듭하기까지 전파한 내용”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사실은, 확실히 우리의 행위로 인한 모든 공로를 배제하고, 우리의 모든 공로와 칭의 받을 자격을 오직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며, 우리의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값없이 주어진다”는 진리였다고 주장했다.[[8]](#footnote-8)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란, 칭의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비유’를 통해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스스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임을 인정하고 또 자신이 변함없이 주장해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를 설명함에서 루터나 칼빈과 큰 차이를 보인다.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들과의 오랜 논쟁 끝에 자신의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1765)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웨슬리가 인정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토머스 오든(Thomas C. Oden)의 설명처럼, “만약 판사가 법정에서 ‘당신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쾅쾅쾅 망치로 때리면, 그것이 바로 사람이 법을 위반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됨과 같은 의미에서의 의의 전가다.”[[9]](#footnote-9)

웨슬리는 이처럼 제한된 의미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인정하기 전, 칼빈주의자 제임스 허비(James Hervey, 1714~1758)와 오랜 논쟁 중에 있을 때, 루터와 칼빈이 가르친 방식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에 강한 반대를 표출했다.[[10]](#footnote-10) 허비는 자신의 저작 『테론과 아스파시오』(*Theron and Aspasio*, 1755)[[11]](#footnote-11)와 『열한 개의 편지』(*Eleven Letters*, 1765)[[12]](#footnote-12)에서 대속이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 모두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란 그리스도께서 온 마음을 다해 온전하게 율법에 순종하신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란 그의 죽음의 문제에 관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음을 의미한다.[[13]](#footnote-13) 허비는 성화 역시 “신자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14]](#footnote-14)

웨슬리는 1756년 10월 15일에 쓴 편지에서 다음의 논리로 허비를 반박했다. (1) “율법은 순종과 죽음 중 한 가지만을 요구한다.” 즉 율법에 순종한 사람은 살 것이지만, 불순종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2) “율법은 사람에게 순종과 죽음을 동시에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했다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즉 율법은 율법을 어긴 죄인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면서, 동시에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형벌이 이미 집행되었다면, 율법은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해 죽은 그 형벌에 의해 이미 성취되었다. (3)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의 죽음으로 … 온 세상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셨다.”[[15]](#footnote-15)

나아가 웨슬리는 『존 굳윈에게서 발췌한 칭의에 관한 논문』(*A Treatise on Justification, Extracted from John Goodwin*, 1765)에서 다섯 가지 논제를 주장했다.[[16]](#footnote-16) 허버트 맥고니글(Herbert McGonigle)이 요약한 웨슬리의 논제는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의 의, 즉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히 순종하신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대속자와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의 의로움을 그리스도께 부여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시지 않았다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히 9:14) 대속 제물의 자격을 얻을 수 있으셨겠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요구되었던 율법의 성취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성취와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칭의는 본질상 죄 용서다. 따라서 전가된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웨슬리는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1746)에서 “칭의의 분명한 성경적 개념은 사면이요 죄 용서입니다. … 칭의에 관한 바울의 평이하고 자연스런 설명은 …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롬 4:7-8)라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그 죄인을 위해 고통당하셨기에, 하나님은 그가 받아 마땅한 고통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라는 말로 칭의를 설명했다.[[17]](#footnote-17)

(3) “의의 전가 교리는 신약성경이 매우 강조하는 회개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웨슬리는 “만약 사람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 받았다면, 무슨 이유로 그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그의 논제를 뒷받침한다. 웨슬리는 비록 성결한 신자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 앞에서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했다.[[18]](#footnote-18) 하물며 비록 칭의를 받았으나 아직 그 마음과 본성에 남아있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 칭의 된 죄인(성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회개 없이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19]](#footnote-19)

(4) “그리스도의 의가 사람에게 전가되어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의롭게 된다는 주장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실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타락한 인간의 상태와 반대된다.” 웨슬리는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그리스도의 상태와 혼동하시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칭의는 결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사람들에게 속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일 … 우리를 실제보다 훨씬 좋게 평가하신다든지, 우리가 불의함에도 의롭다고 믿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 다른 사람이 의롭다는 이유로 나를 무죄하다 … 의롭고 거룩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릇됨이 없는 지혜에 위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윗이나 아브라함과 혼동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와도 혼동하시지 않습니다.[[20]](#footnote-20)

(5) “전가의 교리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혼동해 뒤섞어버린다. 그 결과, 복음을 단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시는 도움 정도로 전락시켜 버린다. 이는 복음, 즉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오해하는 것이다.” 웨슬리에게 구원이란, 자신의 행위든 아니면 전가된 그리스도의 행위든 완전한 행위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함으로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로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웨슬리는 『존 웨슬리에 관한 힐 씨의 논평에 덧붙이는 글』(*Mr. Hill’s Review of All the Doctrines Taught by Mr. John Wesley,* 1772)에서도 같은 논지를 반복했다.[[21]](#footnote-21)

웨슬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신 것을 그가 죄인의 속죄를 위해 제물이 될 자격을 얻으신 사실과만 연결했지,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연결하지 않았다. 또 그는 칭의를 율법의 성취와 분리한 후, 그 대신 회개 및 신앙과는 연결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완벽히 순종하신 것의 전가가 대속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22]](#footnote-22) 달리 표현하면, 속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신자의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의 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다는 이유 때문에 신자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다.[[23]](#footnote-23)

웨슬리는 전가의 교리가 죄인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허비의 주장에 대해, 전가 교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만약 내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모든 개인적 순종이 나의 것이 된다면, 거기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 위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겠는가?”[[24]](#footnote-24) 허비가 주장한 것처럼, 만약 “실제로는 율법을 악명 높게 깨뜨린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죄가 없는 순종을 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죄인으로 “거룩함이 전혀 없이도 흡족한 상태가 되게 한다. … 그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으로 ‘율법 위반자’로 살다 죽는 것에 만족하게 만들어” 율법무용론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될 것이다.[[25]](#footnote-25)

이후에 웨슬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주”(1765)라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한 구원을 믿는 루터란과 칼빈주의 그리스도인과의 화해를 위한 목적으로 전가의 교리에 관해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인정했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의는 총체적으로 신자의 의를 이루는 근거가 되므로, 웨슬리는 바르게만 해석된다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표현 자체는 인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동시에 자신이 반대한 것은 전가의 개념 자체보다, 전가의 잘못된 적용이 초래할 율법무용론적 경향임을 설명했다.[[26]](#footnote-26) 그러면서도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가 율법무용론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신학적 장치를 여전히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웨슬리가 가르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여전히 허비의 가르침과 매우 달랐다.

첫째,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받는 신자의 죄를 “과거의 죄”로 한정하고,[[27]](#footnote-27) 동시에 “죄를 자백”(요일 1:9)함으로 회개할 것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마 3:8; 눅 3:8)을 강조했다. 웨슬리는 회개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개는 여러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죄로 인한 슬픔, (2)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케 됨, (3) 죄를 미워함, (4) 죄의 고백, (5)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 (6) 하나님께 대한 사랑, (7) 죄를 멈춤, (8) 확고한 목표로서의 새로운 순종, (9)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소유를 되돌려 줌, (10) 우리에게 지은 이웃의 죄를 용서함, (11) 자선 행위 등입니다.”[[28]](#footnote-28)

웨슬리가 용서받는 죄를 ‘과거의 죄’로 한정한 것은 성경적 용례를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5)라는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또 베드로 역시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언급한 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벧후 1:9)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전에 지은 죄”, “옛 죄”의 용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일 1:9)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은, 죄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를 파괴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잘못된 태도와 행위를 기억하고 자백하며 뉘우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a deep sense of our past sins)과 “뉘우치는 마음”(a penitent heart)이라는 인격적인 요소도 없이 자동적으로 제거되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니다.[[29]](#footnote-29) 웨슬리에 의하면, “죄 용서는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죄에 대한 자각과 뉘우침, 자백 없이 자동적 〮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30]](#footnote-30)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모두가 용서된다는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객관적 속죄 사역과,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주관적인 적용을 구분하지 않는 신학적 오류에서 비롯된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히 7:27; 9:12, 26, 28; 10:10; 벧전 3:18) 행하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속죄 사역을,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와 믿음을 통한 주관적 수용 과정을 생략한 채 신자에게 바로 적용하는 오류다.

이것이 왜 잘못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죄인의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학적 표현으로 ‘보편 구원론’과 ‘보편 속죄론’이라는 용어가 있다. 전자인 ‘보편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비유를 들면, 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거액의 빚을 졌는데, 어떤 마음씨 좋은 부자가 그들을 딱하게 여겨 마을 사람들 빚 전부를 갚아 주었다면, 마을 사람이 그를 개인적으로 알든 모르든 그들의 부채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객관적 속죄 사역과 그 적용으로서 구원을 이런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보편 구원론’이다. 죄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주장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보편 구원론’은 성경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속죄 사역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인적 수용과 적용을 통해서만 실제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객관적 속죄 사역을 회개와 믿음을 생략한 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 ‘보편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보편 속죄론’이다. ‘보편 속죄론’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객관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그 효력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주관적으로 수용하는 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가르친다.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회개와 믿음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중요한 요소로 가르쳐 성경적 관점을 바르게 표현한 것이 이 ‘보편 속죄론’이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주장은, 마치 ‘보편 구원론’과도 같이 그리스도의 객관적 속죄 사역을 회개와 믿음이라는 주관적 적용의 과정을 생략한 채 신자에게 적용해 용서를 남발하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객관적 속죄 사역을 신자에게 적용할 때, 한 번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미 지은 죄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심지어 회개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한꺼번에 용서를 다 받았다며 마치 ‘보편 구원론’과도 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에서 신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죄를 지은 후,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으며, 회개할 생각조차 없으면서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람이 마음대로 부리는 잡신이나 귀신, 우상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죄란 사람이 하나님께 행하는 인격적인 잘못이고, 하나님은 그 죄과를 회개라는 인격적 자각과 뉘우침, 고백, 돌이킴을 통해 용서해주신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요소를 경시한 채 죄와 용서를 비인격적 물건 다루듯, 은행에 예금된 돈 다루듯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죄를 빠짐없이 기억해 자백하고 회개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에서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속죄 제도를 마련하셨다. 그러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스스로 자각하면서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부지 중에 지은 죄의 속죄 제사는, 스스로 자각하면서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에 동반된 것이었지, 그것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 신자가 지은 죄를 모두 기억해 남김없이 자백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자각하고 기억하는 죄의 자백과 회개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적용해 “부지 중에 지은 죄”마저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신자가 죄에 대해 민감해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무효로 하지 못한다.

만일 루터와 칼빈의 행복한 교환이나 이중 전가의 교리에서처럼, 죄인이 신앙을 갖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영원히 사라졌기에 이제 자신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죄를 짓고도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뉘우치며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라는 말씀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요일 1:8)라는 말씀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31]](#footnote-31)

웨슬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받는 죄를 ‘과거의 죄’로 한정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의 무한하심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요일 1:9)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as often as there is occasion) 용서를 베푸시기에” 용서의 횟수에는 한계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32]](#footnote-32) 따라서 웨슬리가 용서받는 죄를 ‘과거의 죄’로 한정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무한하심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과거에 한 번 믿은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면죄부와 같은 것이 아닌, 늘 현재적 관계의 온전함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신자가 범죄할 경우 철저한 자백과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인격적 관계를 회복함으로 유지될 수 있다.

둘째,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죄책의 용서에 한정 짓지 않았다. 그는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1738)에서 구원을 “과거의 죄책의 용서”로서의 칭의와 “현재적 죄의 권세에서 건져냄”으로서의 성화 모두로 해석한다.[[33]](#footnote-33)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백성(마 1:21), 또는 성경의 표현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행 10:43)을 그들의 모든 죄, 즉 원죄와 자범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를 포함해 “육과 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고후 7:1).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죄책과 죄의 권세 모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책에서의 구원이며 … 또한 죄의 권세에서의 구원입니다.[[34]](#footnote-34)

웨슬리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4)라는 말씀을 주해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은 “죽은 행실, 즉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내적이고 외적인 마귀의 모든 일에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을 정결하게 해, 신앙의 삶과 온전한 사랑, 흠 없는 거룩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함”을 가르쳤다.[[35]](#footnote-35)

셋째, 웨슬리는 구원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와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방법이더라도 성경에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36]](#footnote-36)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주장이 수사적 표현이나 주해의 문제일 뿐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웨슬리의 지적은 정확하다. 칼빈주의자 D. A. 카슨(D. A. Carson)은 “바울의 글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백성에게 전가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본문은 하나도 없다”[[37]](#footnote-37)고 주장한다. 신약신학자 브라이언 비커스(Brian J. Vickers) 역시 “바울의 본문 중 어느 한 부분도 전가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38]](#footnote-38)고 인정한다. 칼빈주의자 유창형은 “죄 사함과 의의 전가를 중심으로 한 칼빈의 칭의론과 그 평가”라는 논문에서, 칼빈 및 루이스 벌코프나 헤르만 바빙크 등 대표적 칼빈주의 학자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의 근거로 제시한 성경 구절(롬 4:6-7; 5:19; 고후 5:18-21; 갈 4:4-7 등)이 실제로는 전가 교리를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으나, 단지 그렇게 해석되어 왔음을 인정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를 주장한 칼빈 자신도 실제 성경 주해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명백히 주장하기보다, 웨슬리가 가르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온전한 율법 성취)과 수동적 순종(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함께 그리스도인을 의롭게 하는 원천이 된다는 의미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합적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39]](#footnote-39)

웨슬리는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1765)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의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과 사역 모두가 신자를 의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의는 신자의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40]](#footnote-40) 즉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를, 루터나 칼빈의 설명처럼 그리스도의 의나 인간의 죄가 마치 물건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신자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과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못 박았다.[[41]](#footnote-41)

웨슬리는 순종은 전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신자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설교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서 크랜머의 “구원에 관한 설교”를 인용할 때 그리스도의 대리적 율법 성취에 대한 모든 언급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웨슬리가 삭제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그들을 위해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 결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율법을 성취한 자들로 여겨진다. 율법의 성취는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를 보완하신 것이다.”[[42]](#footnote-42) 더 나아가 웨슬리는 설교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출판한 후에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보다 수동적 순종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또 자신의 글에서 전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것을 오직 칭의와만 연결했지, 성화와는 연결하지 않았고,[[43]](#footnote-43) 전가된 의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즉시 그 후에 뒤따르는 실제적 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44]](#footnote-44) 웨슬리에게 성화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거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것이기보다, 신자의 기질과 성향과 감정과 의도의 변화다.[[45]](#footnote-45) 같은 맥락에서 웨슬리는,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가르친 데 비해, 도덕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대리적으로 성취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주장에 반대했다. “그러한 설명이 율법폐기론자들이 성결도 전가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46]](#footnote-46)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의식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기된 것과 달리, 도덕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기되지 않았고 신자 자신이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이후에도 제사장적 중재를 계속하신다.[[47]](#footnote-47) 웨슬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엄격하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자는 “여전히 죽어 마땅”하고 “여전히 형벌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신자가 정죄에 처하지 않으려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칭의 시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이다.[[48]](#footnote-48)

웨슬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하나님 섭리의 삼중원이라는 개념을 통해 언급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오직 하나님의 현세적 축복만을 받아온 가장 바깥쪽 원에 속하는 불신자들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중간 원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 후에도 신자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 결국 하나님 섭리의 가장 중심 원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 섭리의 중심 원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단지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사역에 동참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은 사람을 가장 바깥쪽 원에서 가장 안쪽 원으로 끌어가는 힘을 갖는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은 신자에게 그들의 의무를 면제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드러난 하나님 사랑은 신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 마음속에 사랑을 창조해내며 그 마음을 사랑으로 채운다.[[49]](#footnote-49)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웨슬리의 가르침은 두 가지 동기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으로, 웨슬리는 칭의에서 어떤 인간의 공로에 대한 주장도 배제했다. 다른 한편에서, 웨슬리는 신자 자신의 의가 경시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율법무용론도 반대했다. 웨슬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적 순종, 즉 그가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주장에 반대한 것은, 신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부여받아 율법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성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50]](#footnote-50)

**출처: 장기영,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루터 신학 vs 웨슬리 신학』 (부천: 웨슬리 르네상스, 2019), 345-356.**

1. 설교, “원죄”, III. 1; WW 13:34; Harald Lindström, *Wesley and Sanctification: A Study in the Doctrine of Salv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46), 55. [↑](#footnote-ref-1)
2. ENNT Rom 3:25; Gal 3:13; Matt 27:46. [↑](#footnote-ref-2)
3. WW 9:485. [↑](#footnote-ref-3)
4. WW 9:481. [↑](#footnote-ref-4)
5.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II. 7. [↑](#footnote-ref-5)
6.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 II. 5. [↑](#footnote-ref-6)
7. 같은 곳, 서론. 4. [↑](#footnote-ref-7)
8. 같은 곳, II. 6. [↑](#footnote-ref-8)
9. Oden, *John Wesley’s Scriptural Christianity*, 207. [↑](#footnote-ref-9)
10. McGonigle, *Sufficient Saving Grace*, 236-239; Collins, *The Theology of John Wesley*, 174-176. [↑](#footnote-ref-10)
11. *Theron and Aspasio “*Or a Series of Dialogues and Letters upon the most Important and Interesting Subjects,” The Whole Works of the Late Rev James Hervey A. M. [↑](#footnote-ref-11)
12. McGonigle, *Sufficient Saving Grace*, 217-219. [↑](#footnote-ref-12)
13. 같은 책, 221; Hervey, Works, 2:336-337. McGonigle, *Sufficient Saving Grace*, 222에서 재인용. [↑](#footnote-ref-13)
14. Hervey, Works, 2:163-164. McGonigle, *Sufficient Saving Grace*, 223에서 재인용. [↑](#footnote-ref-14)
15. Letters 3:373. [↑](#footnote-ref-15)
16. McGonigle, *Sufficient Saving Grace*, 233-234. [↑](#footnote-ref-16)
17.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 II. 5. [↑](#footnote-ref-17)
18. Plain Account, 53, 55. [↑](#footnote-ref-18)
19. 설교, “신자의 회개”, I. 16; III. 3. [↑](#footnote-ref-19)
20.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 II. 4. [↑](#footnote-ref-20)
21. WW 10:386. [↑](#footnote-ref-21)
22. WW 10:312-315. [↑](#footnote-ref-22)
23.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 II. 4. [↑](#footnote-ref-23)
24. WW 10:315. [↑](#footnote-ref-24)
25. McGonigle, *Sufficient Saving Grace*, 226. [↑](#footnote-ref-25)
26.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 II. 19-20; WW 10:315; McGonigle, *Sufficient Saving Grace*, 219. [↑](#footnote-ref-26)
27.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II. 3; “믿음에 의한 칭의”, II. 5. [↑](#footnote-ref-27)
28. 설교, “옥스포드의 위선”, I. 7. [↑](#footnote-ref-28)
29. ENNT 1 John 1:9-10. [↑](#footnote-ref-29)
30.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 III. 1-4. [↑](#footnote-ref-30)
31. ENNT 1 John 1:8. [↑](#footnote-ref-31)
32. ENNT Matt 18:22. [↑](#footnote-ref-32)
33. Ted M. Dorman, “Forgiveness of *Past* Sins: John Wesley on Justification: A Case Study Approach,” *Pro Ecclesia* 10, no.3 (Summer 2001), 276. [↑](#footnote-ref-33)
34.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II. 2. [↑](#footnote-ref-34)
35. ENNT Heb. 9:14. [↑](#footnote-ref-35)
36.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 17-20. [↑](#footnote-ref-36)
37. D. A. Carson, “The Vindication of Imputation: On Fields of Discourse and Semantic Fields,” in *Justification: What’s at Stake in the Current Debates*, ed. Mark Husbands and Daniel J. Trei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4), 50. [↑](#footnote-ref-37)
38. Brian J. Vickers,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Paul’s Theology of Imputation* (Wheaton, IL: Crossway, 2006), 18. [↑](#footnote-ref-38)
39. 유창형, “죄사함과 의의 전가를 중심으로 한 칼빈의 칭의론과 그 평가”, 「성경과 신학」 제52권 (2009), 1-35. [↑](#footnote-ref-39)
40. BE 1:454. [↑](#footnote-ref-40)
41. BE 1:455. [↑](#footnote-ref-41)
42. Collins, *The Theology of John Wesley*, 112; Albert C. Outler ed., *John Wesl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126. [↑](#footnote-ref-42)
43.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 II. 10, 19-20; Collins, *The Theology of John Wesley*, 175. [↑](#footnote-ref-43)
44.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 II. 12; Collins, *The Theology of John Wesley*, 176. [↑](#footnote-ref-44)
45. Deschner, *Wesley’s Christology*, 105-106. [↑](#footnote-ref-45)
46. 같은 책, 115. [↑](#footnote-ref-46)
47. 설교, “신자의 회개”, I. 16. [↑](#footnote-ref-47)
48. 같은 곳, I. 16; III. 3. [↑](#footnote-ref-48)
49. 설교, “영적 예배”, I. 9; ENNT Matt 5:45; Col 1:24; Deschner, *Wesley’s Christology*, 67-68. [↑](#footnote-ref-49)
50. Lindström, *Wesley and Sanctification*, 74-75. [↑](#footnote-ref-50)